

전북대 · 대우전자부품 '손 잡았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산학협력 · 우수인재 양성 · 업무 협조 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의 산학 협력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대우전자부품(주)(사장 서준교)과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8일 김동원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서준교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부품(주)은 1973년 설립돼 47년을 이어온 전북지역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9년까지 매출은 5배, 인원수도 2.5배 증가했다.

2020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출 중 절반 이상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부품임을 감안해 5년 후인 2024년에는 3,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공동 기술개발 및 산업현장 애로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뿐 아니라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의 사

업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의체를 구축, 공동 연구그룹 운영을 통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학생 인턴십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서준교 사장은 "전북대와의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 도래에 따른 생산공정 시스템 개발과 기술인력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산학 공동 기술 개발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대우전자부품(주)과의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 사업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화를 통해서 눈부신 발전의 기회"라며 "우리대학이 보유한 연구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대우전자부품(주)과 전북지역의 전기 및 수소 자동차분야 R&D 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대우전자부품(주)(사장 서준교)은 8일 김동원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서준교 사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의 산학 협력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전북교육청, 18대 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위촉

외부 22명 · 내부위원 15명...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행 점검

도교육청은 8일 제18대 전북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외부위원 22명을 위촉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약관리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출된 외부위원 22명과 내부위원 15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다.

공약관리위원회는 공약사항의 합리적 관리와 이행 및 추진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공약이행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18대 전북교육감에 취임하며 '새롭게 빛나는 전북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 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

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등 5대 분야 10대 정책 4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앞으로 2년간 추진하게 될 주요 공약은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미래혁신교육과 참된 학력신장에 1,138억 원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361억 원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 부담경감 및 학부모 학교 참여에 1,323억 원,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과 차별 없는 교육 실현에 522억 원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작은 학교 희망 찾기 및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에 169억 원 등이다.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은 임기 내(2018년~2022년) 투자예정액 7,756

억 원 중 남은 2년 임기 동안 총 3,5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정은성기자

반려동물용품 · 푸드전문가 교육 수료생 작품전 성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운애 센터장)는 8일 센터 로비에서 반려동물용품 및 푸드전문가 양성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 수료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인구 1418만명 시대에 몰입한 반려동물산업 시장이 해가 갈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7년에는 6조 5500억으로 전망되고 있어 반려동물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창업 초기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훈련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의상 · 가구 · 푸드 · 소품 제작 이론 및 실습 ▲사회적 경제의 이해 ▲SNS 마케팅 ▲여성 CEO 창업성공사례 등 지난 5월부터 180시간 동안 반려동물산업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 욕구와 트렌드에 맞는 차별화된 창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료식에 맞춰 진행된 작품전시회는 교육기간 동안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한 팻푸드, 캔디어, 팻하우스, 팻이류, 기타 다양한 반려동물용품 등을 선보임으로써 반려동물 산업분야 초기 공동체 창업을 앞두고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훈련강사로 참여한 전주시공동체지원센터 김창환 센터장은 "교육 훈련생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이미 공동체 조직을 위한 사전준비와 시장조사를 위한 프리마켓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전주시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반려동물산업 공동체 이이템 발굴 등 필요한 경우 심화교육은 물론 멘토링 지원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 기반 마련에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한국식품과학회 '학술진보상' 최현욱 전주대 교수 수상 영예

전주대학교 최현욱 교수(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가 2020년 한국식품과학회 '학술진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72년 시작된 학술진보상은 식품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한 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최 교수는 식품공학 분야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한국식품과학회 학술진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교수는 식품공학으로 전분, 탄수화물 고분자, 쌀 등의 식량자원을 활용한 식품소재화 기술 전분, 노화억제 연구, 글루텐 대체신소재 개발, 유기농 쌀 가공품의 전처리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와 관련 국내외 저널에 4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최 교수는 '락토비실러스 플



란타룸을 이용한 전분 노화억제방법', '저장성이 향상된 저염 유향형 식품제품 제조방법' 등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 국내 농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기술을 전수하고 지역특산물 산업화 연구를 통해 국내 및 전북지역 식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현욱 교수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을 개발해 생산자의 소득증대, 식품·관광 산업의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존중 · 협력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1차 본교섭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일 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와 2020년 단체교섭 1차 본교섭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 1차 본교섭은 지난 4월 13일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연대에서 10명의 교섭위원 선출과 총 406개항의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실무교섭에 앞서 열렸다.

또한 전북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연대는 지난 6월 23일 예비교섭

을 통해 교섭위원 자격, 교섭일정, 교섭장소 등 총 42개항의 단체교섭 절차에 합의한 바도 있다.

노동조합 연대 관계자는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간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지금까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위한 변화 없는 지지와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연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존중과 협력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양측이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정은성기자

전북교육청, 유아 ·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착 지원

개정 누리과정 관리자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8일 이들 간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병설유치원 원장 원감을 대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겸임관리자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누리과정의 개정 고시 및 전면 시행에 따라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유치원 겸임관리자(병설유치원 원장, 원감)의 이해를 돕고 2019 개정 누리과정 취지 및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해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 및 특성 이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 이해 ▲유아 놀이 속에서 배움 읽기 ▲놀이 지원자로서 관리자의 역할 등이다.

/정은성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